

채만식의 『탁류』에 나타난 군산의 지정학

공종구*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글 | 4. 나오는 글 |
| 2. 극단적인 대비의 공간적 위계와 차이 | 참고문헌 |
| 3. 몰락과 파멸의 축으로서의 미두장의 장소성 | <Abstract> |

국문초록

이 글이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소환한 텍스트는 채만식의 『탁류』이다. 1930년대 군산의 실제 지형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 이 작품은 ‘1930년대 군산의 소설적 지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공간적 배경을 지닌 이 작품의 분석을 통해 ‘1930년대 군산의 지정학’을 작성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자 목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 글이 공을 들인 작업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구축된 식민지 도시 군산의 공간적인 표상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 자본의 식민 수탈 기구 역할을 담당했던 미두장의 장소성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1930년대 군산의 주거 공간은 민족을 축으로 한 공간적인 위계나 차이가 명확하게 구획된 전형적인 식민지 이중도시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그 간격이나 간극이 극복되거나 해소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서술자의 절망적인 탄식은 그 위계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극명하게 압축하고 있다. 두 민족의 주거 지역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공간적인 표상의

*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E-mail: kong@kunsan.ac.kr

차이를 통해 채만식은 식민지 근대가 철저하게 일본을 위한 근대화였음을 응변하고 있다.

한편 채만식은 이 작품에서 가장 선명한 장소성을 드러내고 있는 미두장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심장’과 ‘대동맥’이라는 신체적 메타포를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포를 통해 채만식은 미두장이 일본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핵심 수탈 기구였음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더불어 채만식은 당시 미두장이 정상적인 미곡 거래 시장이라기보다는 10%의 증거금을 판돈으로 갖은 협잡과 농간이 난무·횡행하던 노름판이었음을 통찰하고 있다. 그 주변 지역 또한 일제 식민 지배 권력의 비호를 등에 업은 일본 자본이 조선인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유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일종의 ‘경제 특구’였음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제어 : 지정학, 공간 표상, 공간적인 위계와 차이, 장소성, 조락과 결핍, 몰락과 파멸, 미두장, 수탈

1. 들어가는 글

채만식(1902-1950)은 1925년 『세 길로』(『조선문단』, 1924.12)를 통해 식민지 조선 문단의 공식적인 시민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채만식은 자신의 작가적 정체성의 담론 표지로 보편적인 승인을 받고 있는 풍자와 야유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치열한 대결의식을 보여준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채만식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문단 지형에서 돌출한 개성적인 봉우리를 구축한다. 그러한 작가적 비중에 상응하여 채만식의 문학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술회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채만식의 작가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탁류』(『조선일보』, 1937. 10.12 - 1938. 5.17, 198회 연재)에 대해서는 그 작품의 위상에 걸맞게 다른 작품들을 압도할 정도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구체적으로 당대 식민지 조선 비평 담론의 자장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임화의 『세태소설론』¹⁾과 그에 대한 비판적인 화답으로 제출한 김남천의 『세태·풍속·묘사 기타』²⁾를 필두로 『탁류』에 대한 논의는 반복적인 변주의 양상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마디로 『탁류』는 채만식의 작가론을 작성하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거론해야만 할 정도로 채만식의 문학 지형에서

1) 임화, 『세태소설론』, 『동아일보』1938.4.1.-4.6.

2) 김남천. 『세태·풍속 묘사 기타』, 『비판』제62호, 1938.5

그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은 압도적이다.

다른 작품을 압도할 정도로 많은 기존의 『탁류』 연구는 크게 세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양적인 차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는 이 작품의 서사 주체로 기능하는 초봉이의 인생유전과 수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성과들이다. 가부장의 전제적 권력에 기초한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폭력과 억압을 심문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계열의 논의를 대표하는 성과로는 방민호의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³⁾과 한지현의 『『탁류』의 여성의식 연구』⁴⁾를 들 수 있다. 이 계열의 연구 못지않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논의로는 미두장을 매개로 한 초봉이의 아버지 정주사 및 고태수와 장형보의 몰락과 파멸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성과들이다. 이윤 추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논리가 본격적으로 터를 잡아가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식민지 근대(자본주의)의 실체를 심문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계열의 논의를 대표하는 성과로는 홍이섭의 『채만식의 『탁류』』⁵⁾와 한수영의 『하바꾼에서 황금광까지: 식민지사회의 투기 열풍과 채만식의 소설』⁶⁾을 들 수 있다. 이 두 계열의 논의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연구로는 공종구의 『『탁류』에 나타난 가족과 자본』⁷⁾을 들 수 있다. 양적인 차원에서는 이 두 계열의 연구 성과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들어 『탁류』 연구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논의로는 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으로 기능하는 군산의 장소나 공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다. 이 계열의 논의를 대표하는 성과들로는 변화영의 『소설 『탁류』에 나타난 군산의 식민지 근대성』⁸⁾, 임명진의 『채만식 『탁류』의 장소에 관한 일 고찰』⁹⁾, 그리고 박철웅의 『채만식 소설 『탁류』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¹⁰⁾ 등을 들 수 있다.

연구사 검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탁류』에 대해서는 작품

- 3)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2001.
- 4) 한지현, 『『탁류』의 여성의식 연구』,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민족문화연구』6, 2000.6.
- 5) 홍이섭, 『채만식의 『탁류』』, 김윤식 편, 『채만식』, 문학과 지성사, 1984.
- 6) 한수영, 『하바꾼에서 황금광까지: 식민지사회의 투기 열풍과 채만식의 소설』,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 7) 공종구, 『『탁류』에 나타난 가족과 자본』,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53, 2013.8.
- 8) 변화영, 『소설 『탁류』에 나타난 군산의 식민지 근대성』,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2004.5.
- 9) 임명진, 『채만식 『탁류』의 장소에 관한 일 고찰』,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59, 2014.12.
- 10) 박철웅, 『채만식 소설 『탁류』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 『한국지리학회지』 10권 2호, 2021.

발표 당시에 이루어진 임화와 김남천의 관심을 시작으로 세 차원과 방향에서 전개된 논의만으로도 한 편의 논문을 작성해도 될 정도로 많은 성과들이 제출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탁류』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자칫 동어반복의 혐의를 무릅써야 할 수도 있는 이 작품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작품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1930년대 군산의 공간적인 표상을 탐색하고 천착하기 위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 제목들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의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논의는 세 번째 계열의 기존 논의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는 있다. 이 글 또한 그 계열의 논의들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공간이나 장소성의 의미 탐색에 초점을 맞춘 기존 논의들과는 달리 이 글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공간이나 장소의 탐색을 통해 1930년대 군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대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채만식의 작가의식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글은 구체적으로 『탁류』에 나타난 군산의 공간 표상을 통하여 1930년대 군산과 식민지 조선의 지정학¹¹⁾을 작성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서 출발한다.

2. 극단적인 대비의 공간적 위계와 차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의 키워드로 기능하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순서일 듯하다. 이 둘 사이의 개념적 위계와 관계에 대해 이-푸 투안은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공간과 장소의 경계 : 경험적으로 공간의 의미는 종종 장소의 의미와 융합된다.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다.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 건축가들은 장소의 공간적 성질에 대해 말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공간의 입지적(장소)성질에 대해

11) 국제관계학과 정치지리학(Political geography)의 한 갈래인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은 주권을 가진 각 국가 세력의 지리적 분포가 국제 정치, 경제,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에서는 지정학의 범주를 축소하여 『탁류』에 나타난 공간 표상이나 장소성의 분석을 통하여 1930년대 군산의 사회·경제적 역학의 자장을 탐색하는 작업의 의미로 한정하고자 한다.

홀륭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정의하려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장소의 안전, 안정과 구분되는 공간의 개방성, 자유, 위협을 알고 있으며 그 역 또한 알고 있다. 나아가 우리가 공간을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라 생각한다면 장소는 정지(멈춤)이다. 움직임 속에서 정지할 때마다 입지는 장소로 변할 수 있다.¹²⁾

문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푸 투안은 공간과 장소 개념의 존재론적 상호 구속성을 전제하면서도 그 차이를 비교적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공간은 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동적이며 추상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공간이 개별적인 주체들 사이에 의미 있는 정서적 반응이나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공간의 그러한 속성 때문이다. 그 반면 단순히 추상적인 물리적인 실체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공간에 한 개인만의 고유한 경험을 통한 실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그 개인 고유의 특정한 정서나 역사를 지니게 되는 대상이 장소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간이 특정 개인에게 특별한 정서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데 비해 장소는 바로 그 특별한 정서나 역사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추상적인 역동성/개별적인 안정성’이라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투안의 개념적 위계와 관계를 부분적으로 공유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 글은 『탁류』에 나타난 군산의 공간 표상과 장소 분석을 통하여 1930년대 군산과 식민지 조선의 지정학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물리적 범주의 차원에서 공간과 장소의 위계와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공간을, 장소들을 포괄하는 한편 장소들이 위치하고 있는 물리적인 지점이나 행정 구역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장소는 공간에 포괄되는 건물이나 도로 등과 같은 물리적 실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의 북촌과 남촌, 그리고 현재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공간적인 위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간이나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나 지명에 불과한 가치중립적인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 특정한 공간 속에서 위치하며 하나의 장소는 권력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어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공간이나 장소는 상징적이고 권력 투영적인 특성’¹³⁾을 지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사사의 진행이 전개되는

12) 이-푸 투안/구동화·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11, 19-20면.

13) 크리스 바커/이경숙·정영희 옮김, 『문화연구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19-20, 265-266면 참조.

공간이나 장소 또한 크게 다르지가 않다. 단순히 서사의 물리적인 배경으로만 기능하는 공간이나 장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설에서 공간이나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인 배경의 차원을 넘어 한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거나 인물들 간의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한 텍스트의 공간이나 장소의 표상을 분석하고 탐색하는 작업이 지니는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 실체로서의 공간이나 장소 분석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특히 『탁류』와 같이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 텍스트에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은 물론, 가족관계나 신분제도, 주거공간이나 교육의 변화 등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그 물망처럼 얽혀 있어 문화자료의 보고”¹⁴⁾로 기능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텍스트 분석을 통해 군산의 공간 표상과 장소는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며 그러한 설정을 통해 채만식이 의도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렇게 에두르고 휘돌아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黃海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탁류째 얼러 좌르르 쏟아져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처大處(市街地)하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群山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그러나 항구라서 하룻밤 맺은 정을 떼치고 간다는 마도로스의 정담이나, 정든 사람을 태우고 멀리 떠나는 배 꿈무늬에 물결만 남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갈매기로 더불어 운다는 여인네의 그런 슬퍼도 달코롭한 이야기는 못된다.

벗어부치고 농사면 농사, 노동이면 노동을 해먹고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이 아득하기는 일반이로되,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또 달라 ‘명일明日’이 없는 사람들...이런 사람들은 어디고 수두룩해서 이곳에도 많이 있다.(『탁류』, 24-25면)¹⁵⁾

이 문면은 이 작품의 도입부 장면으로 서사가 출발하는 공간적인 배경에 대한 묘사를 제시하고 있다. 공간적인 배경 묘사로 작품의 서사를 출발하는 방

14) 변화영, 『소설과 민족지의 경계 넘기: 『탁류』의 경우』,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37-1, 2004, 73면.

15) 앞으로 본문에서의 작품 인용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작품 인용 텍스트는 채만식/공종구 엮음, 『탁류』, 현대문학, 2011.

식은 특별하지도 않고 따라서 매우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도입부는 그러한 일반론의 서사 문법이나 자장을 훌쩍 넘어선다. 왜 그러한가? 이 작품에서의 군산에 대한 공간 묘사는 단순히 공간에 대한 평면적인 묘사나 설명 수준을 넘어 이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작품의 공간 표상과 장소의 분석을 통해 당대 시대상황에 대한 채만식의 지정학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 글의 문제의식을 탐색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암시하고도 있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먼저 군산의 지형을, 강경 부근에서부터 강물의 흐름이 탁류로 급변하는 금강 하구의 남쪽 언덕에 올라앉은 공간으로 묘사한다. 바로 이어서 서술자는 이곳 군산 항구에서 실마리가 풀리는 서사는 ‘마도로스의 정담’이나 ‘여인네의 달콤한 이야기’는 못된다면서 『탁류』의 서사가 비극적인 지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암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존을, 희망을 설계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내일이 없는 사람들’로 규정하면서 군산의 정주민(조선인)들을 조락과 결핍을 피해가지 못할 불행한 운명의 소유자들로 표상하고자 하는 서술자의 의도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자연경관에 대한 의미가 그것을 인지하는 작가의 현실 인식에 따라 비유적으로 표현”된다는 전제하에 “탁류처럼 혼탁한 시간을 일제 강점기로, 그리고 군산을 식민지 시대의 탁류에 휩쓸린 암울한 현실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공간”¹⁶⁾으로 규정하는 지적은 적실해 보인다. 서사의 전개가 진행될 군산과 그 주민들을 조락과 결핍의 공간으로 표상하는 도입부에서의 서술자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어서 제시되는 다음과 같은 군산의 공간 지형 묘사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정주사는 요새 정거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 난 소화통이라는 큰 길을 동쪽으로 한참 내려가다가 바른손 편으로 꺾이어 개복동開福洞 북판으로 들어섰다.

예서부터가 조선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지금은 개복동과 연결된 구복동九福洞을 버무려가지고 산산정山山町이니 개운정開運町이니 하는 하이칼라 이름을 지었지만, 예나 시방이나 동네의 모양다리는 그냥 그 대중이고 조금도 개운開運은 되질 않았다. 그저 북판에 포도장치鋪道裝置도 안 한 십오 간짜리

16) 변화영, 『소설과 민족지의 경계 넘기: 『탁류』의 경우』, 83면.

토막길이 있고, 길 좌우로 언덕아 평지가 있는 등 마는등 하다가 그 대로 사뭇 언덕 비탈이다.

그러나 언덕 비탈의 언덕은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는다. 급하게 경사진 언덕 비탈에 게딱지 같은 초가집이며, 낮은 생철집 오막살이들이, 손바닥만한 빈틈도 남기지 않고 콩나물 길 듯 다닥다닥 주어 박혀, 언덕이거니 짐작이나 할 뿐인 것이다.....

개복동, 구복동, 둔뱀이, 그리고 이편으로 뚝 떨어져 정거장 뒤에 있는 ‘스래(京浦里)’, 이러한 몇 곳이 군산의 인구 칠만 명 가운데 육만도 넘는 조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깨를 비비면서 움닥움닥 모여 사는 곳이다. 면적으로 치면 군산부의 몇십 분지 일도 못되는 땅이다.

그뿐 아니라 정리된 시구市區라든지, 근대적 건물로든지, 사회시설이나 위생시설로든지, 제법 문화도시의 모습을 차리고 있는 본정통이나 전주통이나 공원 밑 일대나, 또 년지시 월명月明山 아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주택 지대나, 이런 데다가 빗대면 개복동이니 둔뱀이니 하는 곳은 한 세기나 뒤떨어져 보인다. 한 세기라니, 이제 한 세기가 지난 뒤라도 이 사람들이 제법 고만큰이나 문화다운 살림을 하게 되리라 싶질 않다. (『탁류』, 42-43면)

1899년 5월 마산, 성진과 함께 개항된 “군산은 1914년 시(부)로 승격된 이후 36년의 식민지 시기 동안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도시집적도를 유지하며 성장”¹⁷⁾했다. 또한 “군산은 개항 이후 일제의 필요에 의해 부로 승격된 이래 해방 당시까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공간 구성 및 도시의 성장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식민지 도시이다.”¹⁸⁾ 일제의 식민 지배 이후 본격적인 식민지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군산의 공간적인 풍경이나 질서는 그 이전과는 혁명적인 단절에 가까울 정도로 바뀌게 된다. 이 작품이 연재되던 1930년대 후반의 군산 또한 집중적인 식민 지배를 받은 식민지 조선의 대부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개발된 근대적 일본인 거주지와 무질서한 조선인의 거주지가 명확한 경계를 이루면서 공존”¹⁹⁾하는 구조가 확연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민족을 축으로 한 공간적인 위계나 차이가 명확하게 구

17) 김영정 외,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아카데미, 2008, 15면.

18) 위의 책, 18면.

19) 전남일 외 지음,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91면.

획된 전형적인 식민지 이중도시²⁰⁾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등과 같은 도시 인프라나 생활 환경이 좋은 영화동, 신흥동, 월명동과 같은 북서부 지역의 평지에는 일본인들이 거주했고 둔용동(둔배미), 흥남동(흥구덩이), 개복동, 창성동, 죽성동, 해망동과 같이 도시 인프라나 생활 환경이 열악한 동남부의 도심 외곽 지역에는 조선인들이 거주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작품은 전형적인 식민지 이중 도시의 풍경이나 구조가 자리잡고 있던 당시 군산의 지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당시 군산의 지형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는 ‘군산의 소설적 지형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탁류』의 전반부 무대가 되었던 군산에는 현재까지도 해망굴이나 은적사, 재보선창, 조선은행 건물, 제일초등학교 등과 같이 아직도 시내 곳곳에 작품에 등장하던 당시의 공간이나 장소들이 원형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 장소나 공간도 있고, 동녕고개, 군산경찰서, 콩나물 고개, 도립 병원, 공설운동장, 공회당, 이즈모야, 공설시장 등과 같이 그 원형은 해체되거나 용도는 변경되었으나 그 흔적이나 현장은 확인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들 또한 적지 않다. 게다가 정주사 가족의 주거 공간이던 둔배미의 집터나 그 인근의 한참봉 싸전, 미두장 터, 초봉이 신흥집 터, 제중당 약국, 금호 병원 등과 같은 장소나 공간들은 표지석을 통해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군산 근교에 위치한 임피 태생의 채만식은 연재를 시작하기 오래 전부터 이 작품의 구상과 함께 치밀한 사전답사를 마쳤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작품을 연재하던 시기(1937-1938년)에 채만식은 개성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채만식은 전업작가의 길을 선언한 후 마지막 직장이던 조선일보를 퇴사하면서 금광업에 종사하던 셋째 형 준식 씨가 거주하던 개성으로 거처를 옮긴 1936년부터 안양으로 이거하는 1940년까지는 개성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볼 때 군산의 공간 표상 분석을 통하여 1930년대 군산의 지정학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 글의 목적과 관련해서 이 문면은 아주

20) ‘하야시는 일본의 식민지 도시의 형성 과정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부산, 인천, 원산 등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함께 완전히 새롭게 도시가 형성된 유형, 경성, 평양, 개성 등과 같이 제재 사회의 전통적 도시 위에 겹쳐지면서 식민지 도시가 형성된 경우, 만주의 평텐이나 하얼빈처럼 기존 대도시의 근교에 일본이 신시가지를 건설하여 형성된 유형. 이 세 가지 유형 중 군산은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들 도시는 공간적으로도 일본인 거리가 중심이 되어 발달하였고, 주민 가운데 일본인의 비중도 높았다. 하야시 히로시/김제정 옮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2005, 17-19면 참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채만식 특유의 냉소와 야유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이 문면은 당시 군산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주 및 생활 환경의 차이를 극명한 대비와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을 축으로 한 군산의 공간적인 위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 문면에서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는 개복동, 구복동, 둔뱀이, 스래(경포동)는 인구 밀도가 엄청 높을 뿐만 아니라 도로나 건물, 상하수도 시설이나 문화 공간 등에서 생존 자체만을 간신히 가능하게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공간적인 조건에 처해 있다. 그 반면 당시의 엄혹한 검열을 의식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인의 거주 공간이던 본정통이나 전주통 주변의 지역이나 월명동은 1930년 후반의 군산이라는 동일한 차원의 시공간에서 공존하는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질적이다. 그 이질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로 심한가는 한 세기가 지나서도 그 간격이나 격차를 극복하거나 해소하지 못할 것 같다는 서술자의 절망적인 푸념이나 한탄이 웅변하고 있다. 민족의 거주 공간에 대한 이와 같은 위계와 차이는 단순히 중심과 주변, 도심과 외곽이라는 지리적·물리적 경계를 구획하는 의미를 넘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합리화하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당시 군산에 거주하고 있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과는 격절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항만의 노동자나 일본인 가정의 가사 노동자로 일터를 오고가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거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조선인들의 거리 풍경이나 생활 환경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일본인들의 거주 공간을 당시 군산의 조선인들은 어떤 시선과 감정으로 바라보았을까? 자신들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문화나 위생 시설, 건물과 도로 등을 바라보는 조선인들은 일단 세련된 외형이나 그 규모에 압도되어 선망과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시선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열등한 타자로 대상화하는 한편 일본인들을 우월한 민족으로 바라보는 식민지적 무의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그 거울상의 입장에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함으로써 조선인들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과 전통을 부정하게 하는 한편 자기 비하와 민족 허무주의의 열등감을 자극하면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식민 지배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선전하는 전략을 실천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공간 지배는 지배력 행사의 가장 특권화된 형식 중 하나이다라는 브르디외의 통찰처럼 지리적 공간에 대한 처분권은 사회적 공간 내에서 차지한 자리에 영향”²¹⁾을 준

다거나 “공간이란 텅 빈 허공이나 좌표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의 수단이며, 그런 만큼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생산된다”²²⁾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그 간격이 줄어들거나 해소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절망적인 푸념이나 한탄을 할 정도로, 민족을 축으로 한 극단적인 공간적인 위계와 차별의 표상을 동원한 채만식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공간적인 위계와 차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일까? 등단 이후 시종일관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명민한 비판 정신과 치열한 대결의지를 자신의 작가적 화두로 삼았던 채만식은, 문명과 비문명, 빛과 어둠, 정상과 병리, 규범과 이탈의 이분법적 도식의 표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주 공간이나 생활환경의 극심한 차이를 통해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이나 본질이 일본의 집요한 선전이나 주장과는 달리 철저히 일본을 위한 근대화였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채만식은 일본의 식민지배는 조선의 근대화와 문명화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선린우호의 의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지향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제국주의의 수탈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자 했다. 더불어 갖은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여론 조작을 동원하여 식민 지배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던 일제의 선전과 책략이 실상은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공간적인 차별과 위계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정주사가 군산의 대안에 위치한 서천의 용당을 떠나 군산의 둔땀이로 흘러들어 정착하게 된 인생행로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만식은 정주사의 인생 유전과 몰락을 통해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적 수탈이 그러한 공간적인 위계와 차별을 발생하게 한 결정적인 동인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두장의 장소성에 대한 분석 작업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주사의 몰락과 파멸, 그리고 그와 연동된 초봉이의 인생유전과 불행에 결정적인 동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주사의 미두이기 때문이다.

21) 마르쿠스 슈피르/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예코리브르, 2010, 103면.

22)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44면.

3. 몰락과 파멸의 축으로서의 미두장의 장소성

정주사가 처음부터 군산의 빈민들이 집거하던 둔뱀이에 거주하면서 미두에 손을 댔던 것은 아니다. 원래 서천에서 군청 서기로 근무하던 정 주사는 퇴직과 함께 가산을 정리한 후 가솔들을 이끌고 12년 전에 군산의 소화통 거리의 큰샘골로 이사를 오게 된다. 군산으로의 이거 이후 은행원과 미두 중매점을 거쳐 회사를 칠 년 동안 전전하다 가세가 적빈이여세의 형국으로 가파르게 기울어지자 건곤일척의 승부수로 미두에 손을 댔 것이 화근이 되어 미두장에서도 가장 바닥 신세인 하마꾼으로 전락한 후 둔뱀이로 흘러들게 된다. 그런데 정주사의 몰락과 인생유전이 문제인 것은 그것이 정 주사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 주사의 몰락과 파멸은 당시 미두에 손을 대었다가 몰락과 파멸의 신세를 피할 수 없었던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당시 조선의 장삼이사들은 그렇게 미두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그리고 당시 미두장의 메커니즘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을까?

『탁류』에서 장소성이 가장 선명하게 부각되는 미두장이라고 불리는 미곡취인소가 군산에서 개소식을 가진 해는 1932년이다. “1932년 조선취인소령에 따라 인천에만 있던 미곡취인소가 군산에도 승인되어 전주통 22번지에 개설된다.”²³⁾ 그러면 다른 도시들을 제치고 인천에 이어 군산에 미곡취인소가 개설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산의 산업 구조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수탈 정책 때문이다.

군산은 1910년대 이후 전체 수이출 중 미곡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미(米)의 군산’으로서의 명성을 갖고 있을 정도였다.....(그러한 산업 구조를 갖춘) 군산은 전형적인 식민지 도시로서 미곡 이수출에 의해 성장했으며 이를 지지하는 기반은 배후지에 자리잡은 일본인 지주들의 수작경영 및 미곡생산 판매였다.....그러나 식민지 정책에 의한 군산의 쌀 이출은 배후지의 내부 시장보다는 이출을 위한 상품화를 급속하게 발전시켰다. 그 결과 미곡을 중심으로 한 군산의 성장은 그 기반을 배후지 내부 시장이 아니라 일본의 미곡 시장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미곡을 중

23) 박철웅, 앞의 논문, 249면.

심으로 한 군산의 성장과 배후지 농업의 전개는 식민지 내부의 다른 사업과의 유기적 관련보다는 제국 경제를 유지하는 식민지 체제에 편입되어 버렸다..... 그것은 한편으로 배후지의 농민층을 궁핍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이해에 적극적으로 종속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²⁴⁾

1910년 강제 병합에 이은 식민 지배 이후 일본의 식민 지배 권력은 조선에 식민지 경제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해나간다. 그 과정에서 식민지 본국의 원료 및 식량 공급원과 상품 시장으로서의 조선의 지위와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에게 군산·옥구 지역은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비옥·광활한 농지를 확보하고 있는 군산·옥구 지역은 미곡의 집산지였기 때문이다. 군산 지역의 이와 같은 지리적 조건과 산업 여건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전개된 공황으로 인해 더욱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공업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정책과 연동되어’ 군산 지역은 식량공급지로서의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미곡 증산과 함께 일본에 대한 미곡수출은 격증하면서 그와 연동된 미국시장 또한 활황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²⁵⁾

그런데 문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쌀의 상품화를 통한 무역의 활황 국면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거의 전부 식민 지배 권력을 등에 업은 일본 자본의 몫이었지 쌀 생산에 직접 참여했던 조선 농민들의 몫은 아니었다. 조선의 농민들은 일제의 국책을 충실히 좇아 미곡 증산에 각고의 노동력을 동원했지만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조선의 현실을 도외시한 쌀의 무리한 일본 수출로 인해 오히려 더 궁핍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쌀을 생산하면서도 그 부족량을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으로 충당²⁶⁾해야만 했던 현실은 그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극명하게 압축하고 있다. 조선의 농민들은 일본의 경제에 완전히 예속된 식민지 경제체제에서 자신들이 뼈를 깎는 고생과 지극 정성을 통해 생산한 쌀을 식민 모국인 일본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다 수출해버리는 과정에서 쌀 생산의 주체

24) 김영정 외 지음, 앞의 책, 107-118면.

25) 이형진, 『일제 강점기 미주증권시장정책과 ‘조선취인소’』,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43면 참조.

26) 김민영·김양규, 『철도, 지역의 근대성 수용과 사회경제적 변용』, 선인, 2005, 114면.

이면서도 쌀의 소비 주체가 되기는커녕 철저한 소비의 객체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곱다시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가속화하는 한편 농민들의 몰락을 재촉한 식민 수탈 기구가 바로 미곡취인소였다.

미두취인소가 오로지 투기만 횡행하는 장소이거나 수탈을 위한 교두보였던 것만은 아니다. 취인소 설립 당시의 목적은 미곡 품질과 가격의 표준화를 꾀하고, 미곡 품질의 개량화를 촉진하며, 조선 각지에 흩어져 활동하는 미곡 수집상들에게 미곡 가격의 동향을 정확히 알려주어, 구매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아가서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이후, 일제 당국으로서는 미두취인소가 지니는 이러한 ‘순기능’적 측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생산된 미곡은 일부만 국내에서 소비되고 거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이출되는 중요한 ‘상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생산과 집하, 그리고 정미, 보관(창고업) 등, 미곡 생산과 소비에 따르는 전체 과정을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진 가운데, ‘미두취인소’는 그러한 역할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경제기관’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런데, ‘미두장’은 현물거래가 아니라, 거래의 성립과 물품의 인도시기(즉 결제시기)가 다른 ‘청산거래’가 주종을 이루었다. ‘청산거래’란 오늘날의 ‘선물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선물’이란 매매 계약의 시점과 계약의 이행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현물 거래’와 다르고, 매매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선도 거래’와 구분된다.....

결국, 선물 거래란, 현물 없이 일정한 액수를 투자하여, 현물 수도(受渡)의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현물의 시세 변동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시 미두장은 투자액의 10%를 ‘증거금’(미두 용어로는 ‘증금’)으로 내면, 이러한 권리를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었다. 그리고 투기를 조장하는 비밀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즉, 결제일에 이르러 현물이 오갈 때까지는 무제한으로 ‘권리’를 사고 파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쌀과는 아무 상관 없이 오로지 가격변동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 투기판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미곡취인소의 ‘순기능’.....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역기능’, 즉 취인소의 ‘부정적 기능’은, 이러한 ‘선물 거래’에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는 ‘투기 조장의 요인’이다.....바로, 이 ‘취인소’의 부정적 기능인 ‘투기적 요인’이 미두장을 일약 ‘복마전’의 소굴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²⁷⁾

산미증식계획의 시행 이후 활성화된 미곡 시장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던 미곡 취인소는 설립 당시부터 철저하게 일본 자본의 이해관계를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등장했다. 특히 곡물 작황 특유의 유동성과 일본의 미곡 시장과 연동되어 요동치듯 수시로 변하는 가격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겨냥한 일본의 투기자본이 투입되면서 조선의 미곡시장은 쌀을 매개로 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일확천금의 기적을 바라는 투기판에 가까웠다. 실제로 미두 시장에서는 쌀이라는 현물을 직접 사고 파는 현물 거래 방식이 아니라 증금을 내고서 쌀에 대한 권리만을 사고 파는 선물 거래 방식, 다시 말해 “쌀의 현물 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청산 거래 방식을 통한 ‘결제의 권리’만을 사고 파는”²⁸⁾ 거래 방식의 허점이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협잡과 농간이 비일비재했다.

가격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조작이나 농간을 잠재적인 리스크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선물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미두 시장의 작동 방식이나 문법에 대해 조선인들은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조차도 없었다. 하지만 단순히 일확천금을 거머쥌 수 있다는 신기루와도 같은 허황된 욕망에 눈이 먼 조선인들은 야바위판이나 진배없는 그 투기판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다. 휘황한 불빛을 좇아 죽음을 불사하고 맹렬하게 돌진하는 부나방을 방불케하는 기세와 열정으로 뛰어든 미곡시장의 대열에서 남녀노소나 지위고하의 차이는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었다. “머슴에서부터 중매점 점원, 경찰, 사장, 객주 부상, 지주, 지식인,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눈 가지고 귀 뚫린 조선사람의 대다수는 한번쯤 ‘미두’판에서의 일확천금의 꿈을 꾸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미두’는 열풍 그 자체였다.”²⁹⁾ 한마디로 그 당시 미두 시장에 참여한 조선인들의 기세나 열정은 집단적인 광기라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집단적인 광기 일반의 종말이 그러한 것처럼 미두시장의 메커니즘이나 시스

27) 한수영, 앞의 글, 249-251면.

28) 위의글, 248면.

29) 위의 글, 247면.

템에 무지한 상태에서 물욕에만 눈이 멀어 무작정 뛰어든 조선인들의 종말 또한 몰락과 파멸의 길을 피해갈 수 없었다. 자본의 규모나 정보의 극심한 비대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배후의 식민 지배 권력 등 모든 게 일본 자본 중심으로 편향된,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게임의 결과는 불문가지,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철저히 일본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투기성의 거래를 통하여 조선인들의 몰락을 재촉하고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복마전의 소굴로 변해버린’ 수탈 기구로서의 미두장의 공간적인 배치 의도와 장소성의 본질에 대해 채만식은 아래와 같이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두장은 군산의 심장이요, 전주통全州通이니 본정통本町通이니 해안통海岸通이니 하는 폭넓은 길들은 대동맥이다. 이 대동맥 군데 군데는 심장 가까이, 여러 은행들이 서로 호응하듯 웅위하고 있고, 심장 바로 전후좌우에는 중매점仲買店들이 전화줄로 거미줄을 쳐놓고 앉아 있다. (『탁류』, 26면)

군산의 미두장은 전주통에 있었다. 당시 전주통은 주변의 대로인 본정통 및 해안통과 더불어 군산에서 가장 번화하면서도 넓은 도로였다. 미두장이 영업을 하던 당시의 군산 지형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 이 문면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미두장과 미두장이 있던 도로를 비유하면서 동원하고 있는 ‘심장’과 ‘대동맥’이라는 신체적인 메타포이다. 구체적으로 서술자는 미두장이 있던 도로를 군산의 경제가 원활하게 순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대동맥’으로, 그리고 그 도로들에 연결한 미두장을 군산이라는 유기체의 생명 유지에 가장 긴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심장이라는 신체적 메타포에 비유하고 있다. 더불어 미두장 주변에 포진해 있던 은행과 중매점들의 배치를 비유하는 메타포 또한 예사롭지 않다. ‘이 대동맥 군데군데는 심장 가까이, 여러 은행들이 서로 호응하듯 웅위하고 있고, 심장 바로 전후좌우에는 중매점仲買店들이 전화줄로 거미줄을 쳐놓고 앉아 있다.’는 서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리는 먹잇감의 포획을 위한 정교한 장치인 ‘거미줄’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서술자는 미두장 주변에 은행이나 중매점들을 준비하게 포진시킨 공간적인 배치의 의도가 치밀한 계산과 전략을 통해 조선인들의 투기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미두장 주변의 은행이나 중매점들은 미두장의 심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규칙적인 박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세혈관이나 말초신경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것이다. 채만식은 이러한 메

타포를 통해 미두장이야말로 철저하게 일본 자본의 이익을 위한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개입되어 수탈과 억압을 본질로 하는 군산의 식민지 경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핵심적인 기구였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채만식은 특유의 냉소와 독설을 동원하여 수탈 기구로서의 미두장의 본질과 핵심을 아래와 같이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조금치라도 관계나 관심을 가진 사람은 시장市場이라고 부르고, 속한俗漢은 미두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간판은 ‘군산미곡취인소群山米穀取引所’라고 써붙인 **XX도박장賭博場**.

집이야 낡은 목재의 이층으로 험수룩하니 보잘것없어도 이곳이 군산의 심장임에는 갈데없다.

여기는 치외법권이 있는 도박꾼의 공동조계共同租界요 인색한 몽테카를로다.....

망건 쓰고 귀 안 뺨 촌센님들이 도무지 어떤 영문인 줄 모르게 살림이 요모로 조모로 오그라들라치면 초조한 끝에 허욕이 난다. 허욕 끝에는 요새로 친다면 백백교白白教, 들이켜서는 보천교普天教같은 험잡패에 귀의해서 마지막 남은 전장을 올려 바치든지, **좀 똑똑하다는 축이 일확천금의 뜻을 품고 인천으로 쫓아온다. 와서는 개개 밀천을 홀라당 불어버리고 댄손으로 돌아선다.** (『탁류』, 110-111면)

당시 합리적인 미두 거래 관리와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설한 군산 미두시장의 공식적인 명칭은 ‘군산미곡취인소’였다. 하지만 쌀이 단순한 식량보다는 투기 상품의 지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이상 열기로 들끓던 미두 시장을 일본의 투기 자본이 간 건너 불을 보듯 수수방관할 리가 만무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먹잇감을 찾아 배회하던 포식자 일본의 투기 자본에게 미두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최상의 블루오션이 아닐 수 없었다. 높은 수익률을 확신한 일본의 자본이 적극 개입하면서 미두 시장은 애초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 이후 미두시장은 쌀을 매개로 한 합리적인 거래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업자들의 험잡이나 농간이 중심이 되는 투기판의 양상으로 변질되어 갔다. 허황한 욕망에 미혹된 미곡업자들의 투기 열풍과 일확천금의 기적을 바라는 조선인들의 사행심이 상승 작용을 하면서 그러한 양상은 더욱 고착화되면서 미두 시장은 아예 도박판을 방불케 했다. 고향 입피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미두를 통해 파산해 가고 있는 장형인 명식 씨의 실

제 과정³⁰⁾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 개인사는 채만식으로 하여금 미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더욱 강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채만식 특유의 냉소와 독설을 동원하여 미두시장을 아예 ‘도박장’이자 ‘치외법권이 있는 도박꾼의 공동조계’로 규정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한 추정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도박판이라는 비유를 통해 채만식은 당시 미두장이 정상적인 미곡 거래 시장이라기보다는 10%의 증거금을 판돈으로 갖은 협잡과 농간이 난무·횡행하던 노름판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또한 미두장 주변 지역이 일제 식민 지배 권력의 비호를 등에 업은 일본 자본이 조선의 그 어떤 법적인 제약이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온갖 감언이설과 흑세무민의 간계를 동원하여 조선인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유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일종의 경제 특구였음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미곡 식량 약탈의 과정에서 투기욕을 조장하여 소작료로 뽑는 그 외의 나머지, 현물 또는 집이나 논 밭 판돈 등 수중에 남아 있는 현금까지 깡그리 훔어가는 일제 식민지 당국의 가혹한 제국주의적 수탈 정책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³¹⁾는 지적은 당시 미두장을 통한 일제의 제국주의적 수탈 정책의 핵심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미두장을 “식민지 자본 침략의 축소판이자, 식민지 정치권력과 경제적 종속관계를 결집시켜서 표상한 장소”³²⁾로 규정하는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

합법의 형식적 외피를 두른 일본 투기 자본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속수무책으로 뛰어난 도박판의 투기 거래에서 조선 농민들과 조선인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당시 미곡 시장의 투기 거래 문법이나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데다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미두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합법을 빙자한 수탈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의 재산을 마음껏 유린했던 일본의 투기 자본은 최소한의 연민이나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일본의 투기 자본은 ‘무자비한 부락귀’였다. 군산으로의 이거 이후 미두에 손을 댔다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정주사의 인생유전은 조선인들의 그러한 몰락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30) 이형진, 앞의 논문, 45면.

31) 홍이섭, 앞의 글, 98면.

32) 임명진, 앞의 글, 274-275면.

정 주사는 자리하고도 이런 자리에서 봉변을 당하는 참이다.....

소위 ‘총을 놓았다’는 것인데, 밀천 없이 안면만 여겨 돈을 걸지 않고 하바를 하다가 지고서 돈을 못내게 되면,.....

정 주사는, 떡살을 잡은 애송이의 팔목에 가 대롱대롱 매달려 발 돌음을 친다. 목을 졸려서 얼굴빛은 검푸르게 죽고, 숨이 막혀 객객 기침을 배알는다.

낮은 맥고모자는 아까 벌써 길바닥에 굴러떨어졌고, 당목 홀두루 마기는 안팎 옷고름이 뜯어져서 잡아 낚는 대로 주정뱅이처럼 펄럭 거린다. (『탁류』, 26-27면)

정주사는 군산으로의 이거 이후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져가는 가세를 만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미두판에 뛰어든다. 정주사가 아무리 은행과 미두 중매점에서의 경력이 있다고는 해도 자본주의의 첨단 파생금융인 선물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미두 시장의 작동 문법이나 시스템에 정통할 리는 만무했다. 그 또한 미두 시장의 생리나 관행에는 거의 무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물욕에만 눈이 멀어 뛰어들었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몰락의 수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조선인들의 처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문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두장에 기생하면서 소일하는 것을 생의 유일한 낙으로 삼는 하바꾼의 신세로 전락한 후 속임수를 통해 절치기 거래를 하다 들통이 난 후 자식 나이밖에 안 되는 젊은이에게 중인환시리의 대낮에 망신과 봉변을 당하는 정주사의 처지는 바로 그 미두에 손을 댔다가 꽤망신의 신세를 면치 못했던 조선인들의 인생행로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두가 조선인들의 정신을 황폐화하는 마약”³³⁾이라는 지적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 나오는 글

이 글이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소환한 텍스트는 채만식의 『탁류』였다. 1930년대 군산의 실제 지형을 정확하게 재구·재현하고 있는 이 작품은 ‘1930년대 군산의 소설적 지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공간적 배경을 지닌

33) 변화영, 『소설과 민족지의 경계 넘기: 『탁류』의 경우』, 87면.

이 작품의 분석을 통해 ‘1930년대 군산의 지정학’을 작성해보고자 했던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자 목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 글이 공을 들인 작업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일제 식민 지배 권력의 의도와 계획을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축된 식민지 도시 군산의 공간적인 표상을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다른 하나는 일본 자본의 식민 수탈의 침범 역할을 담당했던 미두장의 장소성을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두 가지 작업의 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의 결론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일제의 식민 지배 이후 군산은 본격적인 식민지 도시로 성장해나간다. 그 과정에서 1930년대 군산의 주거 공간은 집중적인 식민 지배를 받은 식민지 조선의 대부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을 축으로 한 공간적인 위계나 차이가 명확하게 구획된 전형적인 식민지 이중도시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인이 거주하던 동남부의 거주 공간은 인구 밀도가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을 비롯한 도시 인프라 및 문화나 위생 시설 등에서 조선인들이 거주하던 북서부 구역과는 비교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그 간격이나 간극이 극복되거나 해소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서술자의 절망적인 탄식은 그 위계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극명하게 압축하고 있다. 두 민족의 주거 지역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공간적인 표상의 차이를 통해 채만식은 식민지 근대가 일본인들의 집요한 주장이나 선전과는 달리 철저히 일본인을 위한 근대화였음을, 그런 점에서 근대화 과정에서의 일제의 식민 지배 유산이나 지분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는 최근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실상과는 거리가 먼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임을 당시 현장에서의 생생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선취하고 있다.

한편 채만식은 이 작품에서 가장 선명한 장소성을 드러내고 있는 미두장의 본질이 철저히 일본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탈 기구였음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탈 기구로서의 미두장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서술자는 미두장과 주변의 도로들을, 인간의 생명 유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과 ‘대동맥’이라는 신체적인 메타포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미두장 주변에 은행과 중매점들을 즐비하게 포진시킨 공간적인 배치의 의도를, 먹잇감의 포획을 위한 정교한 장치인 ‘거미줄’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포의 구사를 통해 채만식은 미두장의 개설이 궁극적으로 일본 자본의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과 전

략에서 출발했음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채만식은 공식적으로는 미곡취인소라는 명칭의 미두장을 아예 '도박장' 또는 '치의법권이 인정된 공동조계'로 규정하고 있다. 채만식이 보기에 당시 미두장은 정상적인 미곡 거래 시장이라기보다는 10%의 증거금을 판돈으로 갖은 협잡과 농간이 난무·횡행하던 노름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또한 일제 식민 지배 권력의 비호를 등에 업은 일본 자본이 조선의 법적인 구속이나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온갖 감언이설과 흑세무민의 간계를 동원하여 조선인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유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일종의 경제 특구였음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식민지시대의 조선 미곡 시장의 투기 열풍은 1939년 일제 당국이 미곡을 전쟁 수행을 위한 ‘통제물자’로 규정하면서 가라앉기 시작하는 한편 투기를 조장하던 장소인 ‘미곡취인소’ 또한 그해 발동한 ‘조선미곡배급조정령’에 의해 폐쇄³⁴⁾되어 역사의 창고에 봉인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탁류』의 공간 표상 분석을 통한 군산의 지정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두에 손을 댔다가 패가망신하는 정주사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씩씩한 생각 한 가지를 못내 지울 수가 없어 착잡한 심정이다.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헤켈의 진화론적 명제를 입증이라도 하듯, 미두 열풍에 이은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에서의 금광 열풍, 그리고 최근의 주식 투자 및 가상 화폐의 열기에 편승하여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상품 가격의 등락에 따라 일회일비, 감정의 롤러코스트를 타다가 종당에는 가산을 탕진하고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불행한 운명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던 한국의 장삼이사의 처지가 정주사의 그것과는 과연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거나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일거에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광기의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투자 또는 투기의 열기와 열풍! 인간의 본성일까? 아니면 욕망일까? 불편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글을 매조지고자 한다.

논문접수일: 2023. 09. 13. / 심사개시일: 2023. 11. 28. / 게재확정일: 2023. 12. 15.

34) 한수영, 앞의 글, 262면 참조.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정홍섭 엮음, 2009, 『채만식 선집』, 현대문학.
채만식, 공종구 엮음, 2011, 『탁류』, 현대문학.
채만식, 1987, 『탁류』 채만식 전집2, 창작사.

2. 단행본

- 김민영, 김양규, 2005, 『철도, 지역의 근대성 수용과 사회경제적 변용』. 선인.
김영정 외, 2008,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아카데미.
김윤식 편, 1984, 『채만식』. 문학과 지성사.
마르쿠스 슈뢰르, 2010, 『공간·장소·경계』, 정인모, 배정희 옮김, 에코리브르.
모리스 블랑쇼, 1998, 『문학의 공간』, 박혜영 옮김, 책세상.
방민호, 2001,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송하춘, 1994, 『채만식』, 건국대학교 출판부.
이진경, 2000, 『근대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이-푸 투안, 2011,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옮김, 대운.
전남일 외, 2008,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크리스 바커, 2009, 『문화연구사전』, 이경숙, 정영희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하야시 히로시, 2005,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김제정 옮김, 모티브.
하지연, 2018, 『식민지 조선 농촌의 일본인 지주와 조선 농민』, 경인문화사.
한수영, 2005,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홍성찬, 2006,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혜안.

3. 논문

- 공종구, 2013, 『『탁류』에 나타난 가족과 자본』, 『현대소설연구』 53호, 9-34쪽.

- 김남천, 1938, 「세대·풍속 묘사 기타」, 『비판』.
- 박철웅, 2021, 「채만식 소설 『탁류』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10권 2호, 237-258쪽.
- 변화영, 2004a, 「소설 『탁류』에 나타난 군산의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 문화』 7권 1호, 299-339쪽.
- 변화영, 2004b, 「소설과 민족지의 경계 넘기: 『탁류』의 경우」, 『한국문화인류학』 37권 1호, 73-103쪽.
- 이형진, 1992, 「일제 강점기 미주증권시장정책과 ‘조선취인소」」,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임명진, 2014, 「채만식 『탁류』의 장소에 관한 일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59권, 255-278쪽.
- 임화, 1938.4.1.-4.6., 「세대소설론」, 『동아일보』.
- 한지현, 2000, 「『탁류』의 여성의식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6권.

<Abstract>

Geopolitics of Gunsan in Chae Man-sik's 『Takryu』

Kong Jong-goo*

The text summoned by this article for intensive analysis is Chae Man-sik's 『Takryu』. This work, which accurately reproduces the actual topography of Gunsan in the 1930s, can be said to be a "novel topographic map of Gunsan in the 1930s." The problem consciousness and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write the Geopolitics of Gunsan in the 1930s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work with this poetic and spatial background. There are two main tasks that this article has worked hard to fulfill this problem consciousness and purpose. One is to analyze the spatial representation of Gunsan, a colonial city established after forced annexation in 1910. The other is to analyze the place of the rice market, which served as an organization for the colonial exploitation of Japanese capital.

In the 1930s, Gunsan's residential space clearl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 typical colonial double city where spatial hierarchy or differences are clearly divided around the nation. The narrator's desperate sigh that the distance or gap is unlikely to be overcome or resolved even after 100 years clearly compresses the degree of hierarchy or difference. Through such spatial differences in representation clearly revealed in the residential areas of the two peoples, Chae Man-sik eloquently states that colonial modernity was thoroughly modernized for the Japanese.

Meanwhile, Chae Man-sik sharply captures that the essence of the rice exchange which reveals the clearest place in this work, was a exploitation mechanism for Japanese capital's profit-seeking. In Chae Man-sik's view, the rice exchange at the time was not a normal rice trading market, but rather a gambling place where tricks and deception with 10% of the margin were rampant. The surrounding area also harshly criticizes that Japanese capital, backed by the protection of Japanese colonial power, was a kind of economic special zone that made it possible to legally violate the property of Koreans.

Key Words : Geopolitics, Spatial representation, Spatial hierarchy and difference, Space, Downfall and deficiency, Collapse and destruction, The rice exchange, Exploitation

* Honoary Professor, KUNSAN NATIONAL UNIVERSITY